



충북의정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2015. 05. Vol 234



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



충청북도의회

<http://assem.cb21.net>



1.

은침 하나 하나
맥을 짚어 꽃는다

찬란한 태몽 앞에
밀려나가는 냉증

대지는 몸을 비틀며
입덧이 한창이다

2.

호기심이 발동한
개구쟁이 눈빛이다

손톱 밑 까매지도록
땅거죽 헤집어

새싹들 간지럼 태며
키득키득 웃고 있다



니순옥

- 중앙일보신인문학상 당선
- 조선일보신춘문예 당선
- 작품집 - 바람의 지문, 미호천 일기
내게로 스며들어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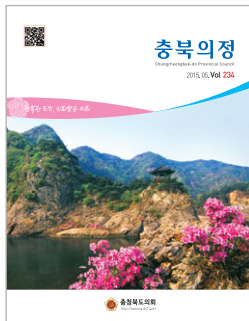
충북의정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2015. 05. Vol 234

Contents

- 04 | 제338·339회 임시회 주요내용
- 06 | 충청북도의회 청사 건립 토론회 개최
- 07 | 충주의료원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
- 08 | 의원 연구활동
- 10 | 해외연수 성과 보고회 개최
- 11 | 상임위원회 활동
- 18 | 제338·339회 임시회 주요처리의안
- 20 | 대집행부질문 · 답변
- 23 | 5분 자유발언
- 26 | 의정활동 이모저모
- 28 | 건강상식
- 29 | 세무상식
- 30 | 의원논단



충북의 명소-영동 한천팔경(월류봉)
한천팔경은 충북 영동군 황간면에 있
는 월류봉의 여덟 경승지를 일컫는
데, 우암 송시열선생이 머물던 한천
정사에서 이름을 땄다고 전해진다.
(김상훈 作)

- 발행일 2015. 5.
- 발행인 충청북도의회 의장 이언구
- 발행처 충청북도의회
- 주 소 (우)360-76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문화동)
- 전 화 (043) 220-5123
- F A X (043) 220-5119
- 홈페이지 <http://assem.cb21.net>
- 구독신청 「충북의정」 구독을 희망하시는 도민께서는 상기의 우편 주소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회는 제 338·339회 임시회를 열어 대집행부질문·토론회 등을 실시하고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현안을 처리했다.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 등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 충청북도 제1회 추경 4조 851억 2천만 원 확정

충청북도의회는 제338회와 제339회 임시회를 열어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도민의 역량 결집과 현안사업에 대한 계획을 꼼꼼히 점검하며 현장위주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도의회는 3월 3일부터 3월 13일까지 11일간 제338회 임시회를 열어 도정 현안에 대한 대집행부질문, 5분 자유발언,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 등을 실시하고 「충청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20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3월 3일 실시한 제1차 본 회의에서는 「제338회 충청

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고 윤홍창·장선배 의원이 대집행부질문을 실시해 '시·군 간의 재정 형편을 고려한 시책추진보전금의 적정한 배분과 집행'에 대한 요구와 '충청북도의 재정운용 실태,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 대책, 아동복지기금 조성, 동남택지개발사업 지구 개발계획 변경' 등에 대한 조치와 대책 마련을 각각 요구했다. 또 임순묵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해 '지역 중심의 맞춤형 복지정책 추진'을 요구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는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3월 3일부터 3월 12일까지 「충청북도 4에이치(4-H) 활동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의원발의 조례와 충청북도지사와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경예산 심의

충청북도의회는 제339회 임시회에서 충청북도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충청북도의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3조 7,588억 73만 1천 원 대비 8.69%인 3,263억 2,051만 6천 원 증액된 4조 851억 2,124만 7천 원으로 확정됐다.

제1회 충청북도 추경예산

(단위 : 천원)

회 계 별	당초예산액	추경예산액	증 · 감
계	4,085,121,247	3,758,800,731	326,320,516
일반회계	3,528,762,723	3,215,709,124	313,053,599
특별회계	556,358,524	543,091,607	13,266,917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천유치원 설립 계획 변경안」 등 14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 했다.

3월 13일 실시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안건을 심사·의결하고 임병운·박병진·박우양·강현삼·장선배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해 ‘오송역세권 개발 지원 강화’, ‘노근리 평화공원 지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인사청문회 특위 구성’, ‘친일인명사전 비치’ 등에 대한 지원 및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4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10일간 실시한 제 339회 임시회에서는 ‘2015년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충청북도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 설치·운영 조례안」 등 23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처리했다.

4월 21일 실시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강현삼

의원이 대집행부질문을 실시해 ‘균형 발전을 위한 충청북도의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임회무 의원은 “도정운영은 정치가 아닌 행정으로 투명하게 펼칠 것”을, 김인수 의원은 “속리산 주변 관광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임병운 의원은 “청주공항 이용 중국 관광객의 도내 소비 촉진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정영수 의원은 “학교주관 교복 공동구매제 개선”을 각각 요구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별로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충청북도사회복지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10건을 비롯한 총 23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하여 본 회의에 상정했다.

이언구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도가 당면한 난맥상을 풀고 신수도권의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도의회·충청북도·도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추경 예산안이 꼭 필요한 곳에 투자될 수 있도록 세밀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충청북도의회 청사건립을 위한 토론회 개최

입지분석 및 설문조사 결과 발표, 다양한 의견 수렴



충청북도의회는 3월 24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충북발전연구원 주관으로 '충청북도의회 청사 건립 토론회'를 실시했다.

충청북도의회가 청사건립 추진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청사관리 방향을 설정하고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활동에 나섰다.

도의회가 청사건립에 나서게 된 것은 비좁은 공간으로 인해 도의회와 집행부는 물론, 충북도나 도의회를 방문하는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도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이와 같이 도의회의 청사건립 추진을 위해 연구용역을 맡고 있는 충북발전연구원은 지난 3월 24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주민, 시민사회단체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북도의회 청사건립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 영동대학교 이완영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충북발전연구원 김덕준 박사의 주제발표에 이어 도의회 임희무 행정문화위원장, 충북도 조운희 안전행정국장, 한국교통대 최남수 교수, 충북참여연대 오창근 국장, 도 교육청 박종칠 행정관리국장이 참석해 도의회 독립청사 필요·타당성, 부지 선정, 청사건립 재정 확보 문제 등으로 분류하여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됐다.

충북발전연구원 김덕준 박사는 주제발표에서 "도의회 청사는 도청의 신관의 일부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인근 시·도의회와 비교해 볼 때 상당히 협소한 편"이라며 "도의회 청사 입지 가능 지역 3곳을 비교 분석해 본 결과 중앙초가 거리상 적지로 판단된다"고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중앙초 부지 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 연구, 역사, 문화, 경제, 생태공간 연결고리로서의 상징성과 원도심의 중요한 중추기능을 회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열린 종합토론에서 임희무 행정문화위원장은 "청사건립 해결의 열쇠는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의 확고한 의지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또 "도심 공동화 현상 방지와 주변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조운희 안전행정국장은 "신축비 등의 재정 문제로 도 교육청 부지를 무상 활용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줄 것"을 도교육청 측에 요청했다.

최남수 교수는 "의회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주민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박종칠 행정관리국장은 "교육청의 재정 부족으로 부지 무상증여는 어려움이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오창근 국장은 "청사건립 타당성을 공청회나 TV 토론회 등을 통한 도민들의 공감대 확산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연구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국 17개 시·도의회 중 독립청사가 없는 곳은 충북뿐이며, 그동안 도의회와 충북도가 청사를 함께 사용해 많은 불편과 애로사항이 있어 왔다"며, "향후 30~40년을 내다보고 다양한 의견과 효율적 추진방안이 도출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충주의료원 활성화 위한 다양한 의견 개진

정책복지위, 토론회 열어 전문가·주민 목소리 청취

정책복지위원회는 4월 30일 충주의료원 대회의실에서 도의원, 시의원, 전문가, 관계 공무원, 충주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주의료원의 활성화 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 토론회는 최근 의료수지 적자, 공공성 강화, 원거리 이전에 따른 이용자 불편 등 충주의료원의 현안 문제를 진단하고 다각적인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봉순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충주의료원 중장기 발전 계획 연구용역을 담당했던 임배만 HM&COMPANY 대표의 주제발표에 이어 김학철·장선배 도의원, 홍진옥 충주시의원, 박일선 충북환경운동연대 대표, 오진섭 충북도 보건복지국장, 백한기 충주시 경제건설국장이 토론자로 나와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임배만 대표는 “경영수지가 다소 증가 추이를 보이고 규모가 타 지역 공공병원과 비교해볼 때 양호한 편이나 접근성, 편의시설, 주차시설 부족 의견이 제기됐다”고 말하고 “진료 특화를 위한 경쟁력 확보와 병상 증설 및 제2병원 건립 등을 제안했다.

김학철 의원은 “저소득·고 연령 환자분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현 위치로 이전한 자체가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지적하고 “재 이전하거나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제고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선배 의원은 “충주의료원의 존재 목적인 공공성을 감안해 무조건 수익창출을 주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충주시 및 지역사회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것과 호스피스 병동 및 분만실

운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홍진옥 시의원은 “외부의 도움보다는 스스로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소아병동 운영” 등을 제안했다.

박일선 대표는 “도민들의 이용 편의 측면에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셔틀버스 운행, 대체 진입로 마련” 등을 제시했다.

오진섭 국장은 “비효율적 경영에 의한 적자가 아닌 이상 충주시민들에게 좋은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고 “접근성을 고려한 셔틀버스 운행”을 제시했다.

백한기 국장은 “운행 중인 시내버스 노선을 10회 증회하는 것을 논의 중”이라고 밝히고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한 자구책 마련”을 요구했다.

그 밖에 플로어 토론을 통해 병원의 24H 운영과 주변 치유의 숲, 전망대 등 휴양 시설과 연계한 병원 홍보 방안 마련이 제시됐다.

또 현행 진입로 폭 확장 또는 대체 진입로 마련, 지역 119구급대 대상 홍보 강화, 전문경영인 체계 구축, 의료원장의 공격적 마케팅 등이 제시됐다.

『충주의료원』 활성화 방안 정책 토론회

일시 | 2015. 4. 30(목) 14:30 | 주최 |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정책복지위원회는 4월 30일 충주의료원 대회의실에서 ‘충주의료원 활성화 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해 의료원의 현주와 미래 발전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어린이집 안심보육환경 조성 연구회’ 출범

어린이집 영·유아 학대 예방 및 근절방안 연구

충청북도의회는 지난 3월 3일 “어린이집 안심보육환경 조성 연구회”를 꾸리고 16일부터 어린이집 영유아 학대 예방 및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활동을 시작했다.

“어린이집 안심보육환경 조성 연구회”는 지난 1월 인천 소재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유아 폭행 사건 이후, 확산되고 있는 도민들의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녀를 보육시설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매우 시급하다고 공감한 정책복지위원회 소속 여섯 명의 도의원들로 구성됐다.

연구회 대표를 맡은 박봉순 위원장은 “아동학대 발생 원인은 다양하고 복잡적이므로 우선 실질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가장 시급하며, 동시에 아동·부모·교사에 대한 인권교육과 보육교사 처우개선도 지속적으로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우리 아이들을 안심하고 보육 시설에 맡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회를 중심으로 도의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연구회는 3월 16일부터 5월 말까지 충북도 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인권의식 조사, 학부모·아동·보육교직원 대상 인권교육, 아동학대 모니터링 현황 조사 및 처우 실태 등을 조사하고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및 FGI 등을 실시하며 이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방안 실태 조사

경제·의사소통·지역사회 적응 등 집중분석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소속 임병운 의원과 최병윤 의원이 충청북도에 정착한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분들에 대한 생활실태 조사를 공동 추진한다.

이번 연구 활동은 충청북도 내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의 생활실태(경제, 의사소통, 지역사회 적응 부문 포함)를 조사하여 여생(餘生)을 고국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필요한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추진되는 것으로 5월 말에 완료될 예정이다.

임병운 의원은 “충남의 경우 실태조사(2013)를 실시하고 지난해 3월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 조례까지 제정했는데 충북은 아직 기본 실태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한정된 예산 범위에서 추진되는 지원의 효과성 담보를 위해서는 먼저 사할린 한인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최병윤 의원도 “본 조사를 통해 이분들이 한국에서 겪고 있는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현재 충북도에는 청주, 제천, 음성 지역에 총 249명(138가구)의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1·2세대 분들이 정착해 힘들게 생활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60세 이상의 고령자들이라고 밝혔다.

‘충청북도 학교 성 평등 교육 연구회’ 출범

학생중심 성·인권교육 실태 및 정책 개발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4월 22일 “충청북도 학교 성 평등 교육 연구회”를 구성하여 충청북도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생 중심 성·인권교육 실태 파악과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 활동을 시작했다.

“충청북도 학교 성 평등 교육연구회”는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청소년 성범죄 및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학교교육활동 속에서 성범죄·성폭력 예방과 올바른 성인권 교육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같이한 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도의원 5명으로 구성됐다.

연구회 대표와 연구책임을 맡은 이숙애 의원은 “아동·

청소년 시기부터 올바른 성 정체성 확립과 폭력에 대한 민감성·양성평등 성인권 의식에 대한 통합적 사고와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며 “학교 성·인권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학생, 교사 및 교육행정가의 인식 향상과 학생 중심의 실효성 있는 성·인권교육 정책개발 및 추진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도내 중·고등학교 성·인권교육에 대한 학생의 만족도, 요구사항, 개선점 등이 포함된 학생 교육경험 실태조사를 연구의 핵심으로 설계하고 학교교육담당자·학생의 면접조사 및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연구방법으로 활용해 5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수행한다.

‘충청북도의회 학교교육정책 연구회’ 구성

도내 중학교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 실태 연구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정영수 의원을 대표로 김양희·이광희·이숙애·이종욱 의원이 공동으로 “충청북도의회 학교교육정책 연구회”를 구성하고 충북도내 중학교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 운영 실태조사 및 학생·학부모의 만족도 조사를 위한 연구계획을 수립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연구 활동을 수행한다.

이번 연구 활동은 충북의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에 대한 실태와 정책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학생·학부모·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수요 조사를 실시해 실질적인 의견을 수렴해 봄으로써 현행 충북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의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

를 높일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정영수 의원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를 이용한 도내 180개 중·고등학교 가운데 40개교가 교복 구매에 차질이 생겨 교복을 입지 못한채 입학식을 가졌고, 15개 중·고등학교는 4월 1일까지도 교복 구매를 하지 못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컸었다”며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를 믿고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학교주관 공동구매와 관련된 정책개선과 종합적·체계적인 행정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철저한 사전 연수로 해외연수 성과 높였다

해외 우수사례 도정 접목, 연수결과 환류 강화



▲ 행정문화위원회는 4월 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 시청을 방문해 최석호 시장을 면담하고 어바인시의 의회와 행정제도 등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 산업경제위원회는 3월 21일 스페인 코르도바에 위치한 유기농 오렌지 농장을 방문해 오렌지 재배방법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올 가을 개최되는 '과산세계유기농엑스포'에 대해 홍보하며 홍보물을 전달했다.

충청북도의회(의장 이언구)는 4월 30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도의원, 공무원외여행심사위원, 의정참여단, 관계 공무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3월 말~4월 초에 실시했던 행정문화위원회와 산업경제위원회의 해외연수에 대한 성과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에서 임희무 행정문화위원장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시는 시정운영에 있어 월 2회 정기적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시정을 펼치는 것에 감명을 받았으며, 충청북도의회도 의회 운영에 있어 도민을 먼저 생각하고 도민의 의견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의 자연환경, 농업시설 및 폐광 등을 활용한 관광정책을 통해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 도 상황에 맞는 관광정책으로 제안하여 충청북도 관광산업이 충북경제 4%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양섭 산업경제위원장은 유럽 선진국들의 유기농업과 태양광 산업,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등에 대하여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국가간 FTA 체결로 농업분야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선진 유럽의 농업시스템을 관찰하고

이를 벤치마킹하여 영동의 포도를 활용한 농업의 6차 산업화 방안을 연구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또한, “화석연료의 고갈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유럽의 태양광 산업분야를 살펴봄으로써 충북도의 향후 태양광산업 분야의 지원 및 발전방안을 모색 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라고 밝혔다.

이언구 의장은 “이번 성과 보고회는 도의회가 도민들의 믿음과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의 소산임”을 강조하고 “성과 보고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관광성 연수라는 지적이 없도록 도의회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성과 보고회 제도는 그간 도민들로부터 관광성, 외유성 연수라는 비판과 더불어 연수 효과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 섞인 시선을 말끔히 씻어내고자 하는 취지로 지난해 12월 말 처음 실시됐다.

특히, 해외연수가 의원의 전문성 향상 등에 효과적인 시간이 되도록 ‘철저한 사전연수 제도’를 실시하여 해외연수 일정과 내용에 해당되는 사례를 도내에서 먼저 연찬하고 해외와 비교 경험하도록 했다.

의회운영위원회

제338·339회 임시회

윤리특위 구성·공무국외여행 규칙 개정



의회운영위원회는 4월 21일 간담회를 열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 현안을 사전 협의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박한범)는 제338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를 열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충청북도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먼저 위원회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구성일로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며 의원의 자격 유무에 대한 자격심사와 품위·질서유지 의무 위반 시 징계심사를 하며, 윤리강령과 실천규범 위반 시에 윤리심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게 된다.

위원회는 또 「제3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심사하여 제33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4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개최하기로 확정하고 의안심사 및 당면업무 협의, 주요사업 현장 방문과 기타 부의 안건을 처리하기로 협의했다.

이와 함께, 충청북도의회 의원의 공무 국외여행에 대한 사후관리의 내실화를 기하고 공무 국외여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귀국 보고서 제출기한을 현행 '1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변경하기로 했다.

그리고 제339회 임시회 중에도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3건을 심사·의결했다.

위원회는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의정활동홍보비 4,500만 원, 교섭단체 대표의원실 운영비 2,200만 원 등 기정예산 85억 5,225만 원 대비 1.5%인 1억 2,823만 원이 증액된 86억 8,048만 원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또 「제34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심사하여 제340회 의사일정을 오는 6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개최하기로 확정했다.

그리고 2014회계 연도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결산검사를 위해 도의원 3명, 공인회계사 2명을 포함하여 총 9명의 선임결산검사위원을 선임했다.

결산검사는 2015년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20일간 충북도청과 도교육청에서 실시되며, 결산 결과 보고서는 7월 정례회에 제출하여 승인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정책복지위원회

제338·339회 임시회

도민 건강증진을 위한 실천적 대책 마련 요구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박봉순)는 제338회 임시회 기간 중 「충청북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의결하고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 방문을 실시하는 등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3월 5일 실시한 제1차 위원회의에서는 지난 1월 임시회에서 심의 보류되었던 3건의 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을 면밀히 심의하여 2건은 수정 가결하고 나머지 2건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그리고 올 5월에 개원 예정인 충청권역 호흡기질환센터를 방문하여 충북의 호흡기계통 질환 사망률이 지난 8년 동안 전국 최고 수준임에도 원인 분석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센터에서 원인분석과 치료뿐 아니라 예방대책 마련에도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충북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에 대한 현지 방문에서는 충북이 2013년도 통계 결과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이 충남, 인천, 강원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음을 제시하며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 등의 실천적 노력을 당부했다.

그리고 제339회 임시회 기간 중에는 「충청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박봉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 설치·운영 조례안」, 장선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처리했다.

또한 도내 중·북부지역 유일의 공공의료기관인 충주 의료원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현장에서 직접 개최하여 지역 주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폭넓은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위원회는 또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비(POOL) 등 사업비 과다 책정, 기대효과 미흡으로 판단되는 일부 사업비 1,271백만 원을 삭감했다.

특히, 4월 30일 충주의료원을 직접 방문해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신축 이전 이후 접근성 부족, 의료 수지 적자 등에 대해 날카로운 분석과 다양한 활성화 방안들을 논의했다.

이날 진행된 토론회에는 충주시 사회단체 및 시민들 포함 150여 명이 참석해 공익적 기능과 수익성의 균형성 확보, 접근성 제고, 진료의 특화 및 전문화, 다양한 홍보 전략 마련 등을 주문했다.



정책복지위원회는 3월 5일 금년 5월 개원 예정인 호흡기전문질환센터 공사 현장을 방문해 현황을 듣고 현장을 점검했다.

행정문화위원회

제338·339회 임시회

재난안전체험관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행정문화위원회는 4월 22일 청주시 월오동에 위치한 재난안전체험관 설립 예정 부지를 방문해 현황을 듣고 시설을 점검했다.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임희무)는 제338회 임시회기 중 보은군 속리산국립공원과 영동군 와인연구소 등을 현지 방문하고 '의정 학술용역 중간보고회'를 실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보은군 속리산국립공원에 대한 현지 방문에서는 케이 블카 설치 등 속리산관광개발 사업에 대한 빈틈없는 사업 추진을 당부하고 영동군 와인연구소 등의 방문에서는 시설을 점검한 후 주민들과의 대화 시간을 갖고 와이너리 프로그램의 획일성을 탈피한 영동만의 특색 있는 체험관광 상품 개발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토론했다.

위원회는 이번 실시한 현지 확인과 간담회를 토대로 전문가 특강은 물론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관광 활성화 정책과 실행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현장과 실무를 접목한 의정활동 지원으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역사회 갈등 해결을 위한 도의회의 기능 강화'에 대한 의정 학술용역 중간보고회를 갖고 지역갈등 해결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추가할 것과 도의회가 지역갈등 예방 및 해결에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보강해달라

고 요구했다.

그리고 제339회 임시회 중에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 재정예산안」을 심사·의결하고 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재난안전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 재난안전체험관 건립부지와 융합바이오 세라믹 소재 센터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심사와 관련하여 청주시 월오동과 오송읍 일원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했다.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충청북도 재난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정책제안을 위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건립부지가 도심과 접근성이 떨어지고 진입로가 비좁아 이용에 불편이 예상된다고 지적하고 청주시와 긴밀히 협의해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기반 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요청했다.

또 “재난안전체험관 건립을 시작으로 충청북도가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고 “노후 시설물 점검에도 만전을 기하여 안전 사고가 없는 충청북도가 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산업경제위원회

제338·339회 임시회

충북경제 4% 조기달성 예산확보 노력 요구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이양섭)는 제338회 임시회시 황규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4에이치(4-H) 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제정된 조례는 농업 후계인력 육성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관련 단체를 지원하여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위원회는 3월 4일 자문위원인 서상택 충북대학교 교수를 초청해 '스페인 토레스 와이너리의 현황과 성공전략'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과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조직위를 방문해 교통, 숙박 등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괴산군 불정면 신종섭씨 농장을 방문 '친환경 토마토 재배 현황, 판로개척 및 가격 유지 정책' 등을 들었다.

또한 3월 5일에는 진천 혁신도시 내에 위치한 태양광 기술지원센터를 방문 '도내 태양광 산업 육성을 위한 센터의 역할, 유럽 태양광 산업의 동향, 도내 태양광 산업 발전 위한 지원 대책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제339회 임시회 중에는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먼저, 이번 개정 조례안 중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경우 도내 농수산물산업의 수출촉진을 위해 협의회 등 조직을 전문화하고 수출 우수기관과 단체 등에 대한 시상제도를 신설하며 경쟁력 제고를 통해 충북경제 4%를 조기에 실현하는 것이 핵심이다. 위원회는 또 4월 22일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며 행사성 예산 지양, 지역별·사업별 예산편성의 형평성 등을 강조하고 더 많은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 집행부를 강도 높게 질책했다.

개회 마지막 날인 4월 30일에는 행정문화위원회와 공동으로 '해외연수 성과 보고회'를 실시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3월 위원회가 해외연수 시 국가 간 FTA 체결로 도내 농업 분야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선진 유럽의 농업시스템, 태양광, 산업분야 등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실시됐다.



산업경제위원회는 3월 4일 괴산군 불정면 신종섭씨 농장을 방문해 친환경 토마토 재배현황과 판로개척, 가격유지정책 등을 듣고 시설을 둘러보았다.

건설소방위원회

제338·339회 임시회

중·장기적 관점의 균형발전 정책 변화 촉구



건설소방위원회는 3월 9일 전라북도 임실군에 있는 '전북 119안전체험관'을 방문해 현황을 듣고 체험시설을 확인했다.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병진)는 제338회 임시회 기간 중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심사와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고, 충북 재난안전체험관 건립을 위해 타시·도의 우수 안전체험관을 방문하는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먼저 3월 3일 실시한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 재난관리 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했다.

그리고 박병진·임순묵·강현삼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해 '노근리 평화공원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 대책마련'을, '도의 예산부담비율을 상향조정'으로 각 시·군 지역에 맞는 복지정책 실천'을, 투명한 인사가 이루어졌는지 검증해보는 '인사특별위원회 구성'을 각각 촉구했다. 또 전북 임실군에 위치한 '전북 119안전체험관' 등을 방문해 운영방향과 시설을 체험하며 우리 충청도 타 시·도의 우수 안전체험관을 방문해 우수사례를 도출하여 향후 특색 있는 재난안전체험관을

건립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리고 제339회 임시회 기간 중에도 대집행부질문을 실시하고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하는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4월 22일 실시한 균형건설국, 바이오환경국 등에 대한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의 신규 사업 도비부담률 증가에 따라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 선정 시 의회와 사전에 협의하는 등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목적에 맞는 사업 발굴과 소방공무원 심신 안전실 설치, 소방본부 공간 확보, 시·군 119안전센터 설치 및 개보수 등 소방예산 확보에 만전을 당부했다.

또한 강현삼 의원은 대집행부질문을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균형발전특별회계 확대, 특별조정교부금 시·군별 균등배분, 투자유치 인센티브 확대 등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육위원회

제338·339회 임시회

도교육청 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주요 안전 심사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홍창)는 제338회 임시회 회기 중인 3월 5일 제1차 위원회를 열어 윤홍창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숙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안」, 이광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했다.

위원회는 또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가칭)진천유치원 설립 계획 변경안」과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에서는 도교육청 관계관으로부터 추진 과정 등을 상세히 보고 받고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했다.

3월 16일 실시한 제2차 위원회에서는 도교육청 소속 11개 직속기관 및 10개 교육지원청으로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각 기관별 중점 추진과제와 특색사업이 기관의 전문성과 기능을 최대한 살리며 교육의 본질적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올바른 계획을 수립했는

지를 확인하고 향후 구체적인 세부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에 대해 만전을 기해 예산낭비가 없도록 효율적 운영과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제339회 임시회에서는 4월 22일 제1차 교육위원회를 열고 「충청북도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전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정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는 저소득층(차상위 계층) 학생에게 지원하던 현장체험학습비(수학여행, 수련활동)를 특수교육대상 학생과 읍지역 이하 초·중학생까지 확대 지원하게 함으로써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과 교육격차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

또 이종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는 각종 제 증명 발급 수수료 300원(영문 발급 600원) 행정적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각종 제 증명 수수료 및 고등학교 전학·편입학 배정 수수료를 무료화하기로 했다.



교육위원회는 4월 23일 제천시 청풍면 신리에 위치한 (가칭)제천기숙형중학교 설립 부지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38·339회 임시회

여러가지 의견 신중 검토 제1회 추경예산 확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27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엄재창)는 4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도지사가 제출한 「2015회계연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벌였다.

도지사가 제출한 2015회계 연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3조 7,588억 73만 1천 원 대비 8.68%인 3,263억 2,051만 6천 원이 증액된 4조 851억 2,124만 7천 원이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130억 5,359만 9천 원(9.74%)을 증액한 3조 5,287억 6,272만 3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32억 6,691만 7천 원(2.44%)을 증액한 5,563억 5,852만 4천 원이다.

4월 13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4월 27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는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집행부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질의·응답이 오가면서 심도 있게 심사를 진행되었다.

위원회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진행된 심사에서 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 등 총 17건 24억 2,022만 5천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함으로써 충청북도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조 7,588억 73만 1천 원 대비 8.68%인 3,263억 2,051만 6천 원이 증액된 4조 851억 2,124만 7천원으로 확정됐다.

엄재창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4월 30일 개최한 제2차 본 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해 확정된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했다.

충청북도의 금번 추경예산은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 준 국고보조사업을 증액 계상하고 2015년 괴산유기농산업엑스포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제고 등 성공개최를 위한 지원 사업비와 도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스마트미래 여성플라자 주차장 건립 사업은 충분한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의회와 협의 후 사업을 추진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현장중심 의정을 펼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출자: 충청북도지사)

-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충청북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출자: 충청북도지사)

- 민간위탁의 투명성·책임성 제고를 위해 위탁사무 신설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 위탁사무 삭제 및 이관 변동사항 정비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출자: 충청북도지사)

-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종교단체의 의료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을 변경하고, 물류단지 및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에 대해 법정 감면율에 추가하여 감면율을 정하고자 함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출자: 충청북도지사)

- 상위법 개정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에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이 신설되고 재정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민선 6기 도지사 공약사항인 “시골마을 행복택시”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임순묵 의원)

-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장사무 규정상 정무부지사 소관 위원회임에도 현행 조례에는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재난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위원장이 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충청북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출자: 충청북도지사)

-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재정보전금 명칭변경 및 일반재정 보전금 배분기준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함

충청북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제출자: 충청북도지사)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충청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이광진 의원)

- 환경관련 전문가들이 도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직 위원 수를 확대하고, 환경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위원장이 되어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가칭)진천유치원 설립계획 변경안(제출자: 충청북도교육감)

- 기존부지 매입, 인근 장례식장 위치, 부지 인접 사유건물 진입로 확보 등의 문제로 유치원 설립 부지로는 부적합 판단, 폐교를 활용한 전원유치원 설립 및 지역거점 야외 체험학습장 활용과 교육예산 절감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윤홍창 의원)

-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학교설립 및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학생수용, 지역 전락사업과 연계한 인력양성 등 제반 행·재정 업무와 관련한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유기적 협조 체제를 구축

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출자: 충청북도지사)

-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정보화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충청북도 4에이치(4-H) 활동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황규철 의원)

- 4에이치(4-H) 활동이 지방자치 여건에 맞게 민간영역이 활성화되고 원활한 자립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충청북도교육청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표발의: 이광희 의원)

- “충청북도교육청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에서 사용한 ‘근로자’ 용어는 그 의미가 포괄적이고 해석상 불명확성이 있어 ‘근로자’를 ‘교육공무직원’으로 변경하고자 함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출자: 충청북도교육감)

- 공유재산의 취득 사유 발생 및 (가칭)진천유치원 설립계획 변경에 따른 설립 부지를 변경하고자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충청북도의회 의결을 구하려는 것임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안(대표발의: 이숙애 의원)

- 정보화교육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정책 마련과 정보화교육 강화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올바른 정보통신 활용 능력 습득과 바른 가치관 및 윤리의식을 증진시킴으로써, 정보화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보화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충청북도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 설치 · 운영 조례안(대표발의 : 박봉순 의원)

-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을 설치 · 운영할 근거 마련

충청북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 박병진 의원)

-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위원장이 되도록 조례를 개정

충청북도 교육 · 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 이종욱 의원)

- 제증명 수수료를 무료화하여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 김인수 의원)

- 도내 여성기업 지원을 위해 운용 중인 조례의 위원회 구성 중 위원장을 행정부지사에서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로 개정

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2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선진지 연수 및 퇴직 공무원 포상에 대한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 보완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재난안전체험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및 융합바이오 세라믹 소재센터 건립부지 일부매각 등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 장선배 의원)

- 기금 운용 시 매년 이자의 10%이상을 재적립하도록 명시한 조항을 삭제하여 기금 활용도 제고

충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한시기구를 삭제

충청북도 교통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 강현삼 의원)

-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위원장이 되도록 조례를 개정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 이양섭 의원)

- 농수산식품산업의 수출촉진을 위한 협의회 등 조직 전문화와 수출 우수기관, 단체 등에 대한 시상제도를 신설하여 경쟁력 제고

충청북도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 정영수 의원)

-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학부모 교육비 경감을 추진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 임현경 의원)

-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위원장이 되도록 조례를 개정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도정 각 분야에서 자문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도정 정책자문단을 행정수요에 맞추어 확대 및 강화

충청북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 장선배 의원)

- 매년 이자의 20% 이상을 재적립하도록 명시한 조항을 삭제하여 기금 활용도 제고 등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충청북도 재난안전의 체계적인 연구와 정책제안을 위한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 교육행정 수요 증가에 따라 교육전문직원을 증원하고,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한시적으로 책정된 정원을 삭제하는 등의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구입 · 등록 시 지역개발채권 감면(150만원 한도) 만료기간을 연장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외부위원의 이해충돌방지장치를 마련하고, 중 · 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방안 검토 강화 등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2014.11.29. 공포, '15.1.1 시행)됨에 따라 조례를 전부개정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안(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민간위원의 비율을 4분의 3 이상으로 확대

시책추진보전금 투명하게 편성·집행되어야

윤 홍 창 의원
(교 육 위 원 회)



시책추진보전금 편성 관련

질문 | 시책추진보전금은 시·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시·군에서 징수하는 도세와 도의 지방소비세액을 재원으로 하는 것인데 그중 10%를 도지사의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답변 | 네

질문 | 시책추진보전금 배분 기준은 시·군이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재해로 인한 특별 재정수요사업, 낙후지역 개발사업 및 균형발전 지원 사업,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답변 | 네

질문 | 지사님! 관련법과 조례에 따라 적정하게 배분한 것인지, 특별한 기준이 있어서 배분한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재정보전금 배분조례에 맞게 집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 제천시지역에 제일 많이 주고 단양지역에는 제일 적게 주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답변 | 기본적인 배분기준이 있으며, 특별히 재정수요가 있거나 기관장의 재량에 많이 의존하는 것이고 시급한 사업과 당초에 편성하지 못한 사업들로서 시·군의 건의를 받아서 편성하기 때문에 일정한 배분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시책추진보전금 배분 관련

질문 | 2014년도 시책추진보전금은 예산액 대비 99.9%인 401건에 230억 1,700만 원이 집행됐는데, 시책추진보전금을 이런 소규모 주민사업에 지원 하는 것이 목적에 부합하는지요.

답변 | 낙후지역이라는 개념은 낙후지역 뿐만 아니라 낙후계층인 노인 및 장애인 등에게도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질문 | 제가 정자를 설치한 지역에 가봤습니다. 낙후지역이 아닙니다. 실제 낙후지역을 말씀드려볼까요?

답변 | 정자를 설치한 지역이 낙후지역이 아니라 낙후계층이 사용하는 곳입니다.

질문 | 아파트에 운동기구를 설치한 것은 어떤 것이지요? 더욱이 좋은 아파트인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답변 | 시장·군수, 도의원 등이 건의한 사업을 집행한 것입니다.

질문 | 3천만 원이하 소규모사업비가 2013년 28억 5,200만 원에서 2014년 50억 6,100만 원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특히, 상반기 증가폭이 눈에 들어오는데 3천만 원 소규모사업이 왜 이렇게 늘어난 것이지요?

답변 | 2014년 소규모사업비가 조금 늘어난 것은 2013년 48%에서 2014년 58%로 늘어났는데 3천만원 이하 사업비가 증가한 반면 5천만원 이하 사업비가 줄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3,000만 원 소규모 사업비가 대폭 증가한 것은 지사님이 선거를 의식하고 의도적으로 증액시켰다는 의심이 드는데요?

답변 | 선거와 관련 없이 지난해에 소규모 주민사업비가 특히 많았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 집행 관련

질문 | 5억 원 이상의 증감이 있는 지역이 3곳인데 이중 지사님과 정당이 같은 곳이 가장 많이 늘었고 지사님과 정당이 다른 1곳은 가장 많이 감소했습니다.

단체장의 소속 정당에 따라 영향이 있었는지요?

답변 | 2014년 시책추진보전금의 상당부분이 7월전에 집행되었습니다. 청주는 6월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이고 제천은 새누리당이었습니다.

정당과는 무관하게 집행하였습니다.

질문 | 시책추진보전금은 총액만 의결 받고 그때 상황에 따라 확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위해 도의회의 의결을 통해 투명하게 지출하겠다는 개혁적 결단을 내리시면 됩니다.

답변 | 도지사가 시·군의 도정 설명회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시책추진보전금을 집행하는데 미리 의견을 받아서 예산 편성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질문 | 시책추진보전금은 시·군간의 재정현황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배분되고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부의 꼼꼼한 검토와 집행을 촉구합니다.

지방재정 확충·수도권 규제완화 저지 대책 요구

장 선 배 의원
(정책복지위원회)



충청북도 재정운용 분야

질문 (질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교부세율 상향 조정과 지방소비세율 인상이 시급한데 정부와 정치권에 어떤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답변 법정교부율 상향 조정(19.24%→23%)과 교부세 산정기준 및 신규 항목 신설은 물론, 지방소비세율 인상(11%→20%)에 대해서도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한 지속적인 건의로 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문 지방채를 금융위기 이전의 4천억 원대 규모로 낮춰야 한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감축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일반회계 기준으로 채무 규모는 5천억 원이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비교적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신규 발행을 억제하고 여유재원을 활용한 조기상환으로 채무규모를 줄여나가겠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와 관련

질문 충청권 공조체계 재 정비와 강화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 등 현안 해결을 위한 충청권 공조 강화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충청권행정협의회 주관 시·도의 자격으로 지난 2월 10일 충청권 4개 시·도지사 및 지역국회의원 24명이 모여 충청권 공조를 다시 확인하며 수도권 규제완화 규탄 공동 성명서를 채택해 국회 및 청와대 등에 전달했습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협의체를 중심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의 목소리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데 주도적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동복지기금 조성 관련

질문 취약계층 아동들을 지원할 재원으로 다른 지역처럼 아동복지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충북도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정부에서는 유사·중복기금은 단일기금으로 통폐합하고 예산사업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빈곤 및 여가·문화욕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도록 기존의 기금사업과 예산사업을 지속적으로 보완·확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행복정책 관련

질문 우리 도의 정책에 적용 가능한 행복지수 개발에 어떤 구상과 계획을 추진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우리 도는 도민 삶의 질과 행복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 설정 등을 위해 '도민행복 종합 마스터플랜'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충북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도민 행복지수 개발을 위해 심층적이고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청주 동남 택지개발사업지구 개발계획 변경 관련

질문 A-5블럭 택지 용도 변경으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금년 상반기 내에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민원해결방안이 수립되도록 LH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아가겠습니다.

질문 사업지구 내 미래여성플라자 건립과 관련해 도의회가 수차례에 걸쳐 주차 공간 확보를 주문해 왔는데 LH공사 충북본부와 어떻게 협의하고 있습니까?

답변 앞으로 담당부서 및 LH공사와 긴밀히 협의해 기존 업무시설용지의 활용도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미래여성플라자의 주차장 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청렴도 향상 대책 관련

질문 청렴도 향상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으며 청렴의식과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답변 종합청렴도 전국 1위 달성을 목표로 치밀하게 준비하고 특히, 2015년도 청렴문화 확산 대책 5개 과제 36개 시책을 중점 추진하여 우리 도 산하 공직자가 솔선수범하여 지역사회 전체에 청렴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북부·남부권에 대한 균형발전 대책 마련 요구

강 현 삼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충청북도의 균형 발전 정책관련

질문 | 민선 6기 충청북도는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도민 모두 행복한 충북을 만들겠다고 하시는데 6년간 도정을 이끄시며 지역 간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다들 이야기 합니다.

남은 임기동안 위 슬로건이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와 가능하시다면 그 대책을 개략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도내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생각처럼 쉽게 되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균형 발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정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균형 발전과 관련해서는 획기적 개선은 아니더라도 점점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도로건설 균형 발전 관련

질문 | 지사 임기 6년간 총 6,822억 원의 도로 건설 예산 중 청주·충주권에 4,19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했습니다.

도의 도로 건설 예산의 62%를 청주·충주권에 투입하고 남은 38%의 예산을 10개 시·군에 나누어야 하는데 예산편성이 북부권·남부권의 균형 발전은 어떻게 시키려는 생각입니까?

답변 | 도로 부분 중 고속도로 및 철도가 빠져있습니다. 청주권은 국도대체 우회도로, 충주권은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계기로 국가지원지방도 및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집중 투자되었습니다.

제천의 경우 고속도로 부분에서 충주~제천간 고속도로에 7,800억 원이, 제천~원주 간 철도 1조 1천억 원 등이 투자되었습니다.

질문 | 충청북도가 관리·건설해야 하는 지방도가 42개 노선의 1200km의 지방도를 가지고 있는데 순도비로 건설·관리해야하는 도로입니다.

비포장 및 미개통 도로가 58km 남아있는데 이 부분의 예산 배정에 최선을 다해주셔야 합니다.

답변 | 도 재정 여건으로 순도비가 들어가는 지방도에 예산 투입을 못하고 있지만 지방도를 국지도로 승격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투입으로 조속히 사업을 마칠 수 있으며 앞으로 지방도 중 교통이 혼잡한 곳은 국지도로 승격시키고자 노력하고 그 외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국제행사와 관련

질문 | 도에서 치러지는 국제행사의 도비 부담률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서 예산 분담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 | 일반적으로 국제행사는 시·군이 아이디어를 내고 시·군이 주관하는 행사는 50:50의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도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국제행사는 도비가 좀 더 부담되었는데 가급적 균형을 맞추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문 | 도가 주관하는 행사는 왜 청주·청원에서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오송이 바이오와 화장품의 메카라는 방향으로 나가다보니 청주·청원에 행사가 있었습니다.

투자유치 관련

질문 | 지사 임기 5년간 총 28조 2,197억 원의 투자유치를 했습니다. 이중 청주·충주·진천·음성에 23조 7,045억 원이 유치되어 84%의 투자유치가 4개 시·군에 집중되어있으며, 저발전 지역에 투자하는 16%의 회사는 개소당 투자금액이 현저히 적은것도 문제입니다. 투자유치를 균형 있게 할 충청북도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투자유치 대상 기업에 균형발전차원에서 저발전 지역에 투자유치를 유도하고 있지만 기업의 입장 및 판단에 의해 투자유치가 최종 결정되다 보니 청주·충주권에 집중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선 5기 들어 과거에 비해 북부·남부권의 투자비율이 높아졌습니다.



5분

자유발언



임 순 목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지역이 중심이 되는 맞춤형 복지정책 추진하라

중앙정부는 큰 틀에서 국민에게 공약한 내용을 최대한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 내 각 시·군 기초단체들이 처한 실상을 살펴보면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서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초자치 단체에 너무나 많은 예산 부담을 주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는 그 지역에 맞는 복지정책을 입안하고 싶어도 예산의 한계로 실행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전가하는 복지예산은 다시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예산 부담을 가중시켜 결국 재정적 뒷받침이 없는 빈껍데기 복지 정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각 시·군이 지역에 맞는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싶어도 예산 부족으로 그 지역에 맞는 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중앙부처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수립한 복지분야 공약과 정책을 시행할 때에는 예산 부담비율을 최소 5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기초자치 단체의 예산 부담률을 낮추고 각 시·군에서도 그 지역에 알맞은 맞춤형 복지를 구상해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박 우 양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제언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새만금에 국제공항 건설을 촉구하는 발언을 했는데 이는 그동안의 노력을 한순간에 허물어 버리는 후안무치한 태도로 충청도민을 우롱

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2012년 8월 당시 민주통합당 대통령 선거 후보 충청 합동연설회에서 "청주국제공항을 세종시 관문공항으로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고 지난 5일 오송바이오밸리를 찾아 "충북이 국가 균형 발전의 상징인 동시에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했는데 이는 청주국제공항도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시종 도지사님과 집행부 관계관들께 MRO 사업을 포함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드립니다.

첫째, 청주공항 활성화와 MRO 사업 추진을 위해 충북도의 숙원사업인 활주로 연장사업을 조속히 시행하여 대형 국제선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문재인 대표의 새만금 신공항 건설 발언과 관련한 진위 파악과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정치권과 다른 지자체와 협력해 선제적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 병 진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영동노근리 평화공원 지원책 마련해야

영동노근리 평화공원에는 국내·외에서 매월 평균 10,000명이 방문하고 있으며 연말쯤에는 방문객수가 120,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점차적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가치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노근리 평화공원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과는 달리 유독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씁쓸한 심정입니다.

도지사께서는 '노근리 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 회복 특별법' 상 실무위원장을 맡으시며 5년 동안 노근리 평화공원 조성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충청북도에서는 지난 2011년 노근리 평화공원 준공식 이후 공원의 운영과 지원에 관련해 도비 지원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충청도정의 어디에서도 노근리 평화공원에 대한 관심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부디 지사께서는 국비로 세운 노근리 평화공원을 이제는 충청북도 차원에서 깊은 관심을 갖고 보다 내실 있고 발전적인 운영이 되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주시길 것을 촉구 드립니다.



강 현 삼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민선 5·6기 인사검증 인사특위 구성 필요

본 의원은 제337회 임시회 본 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청북도 인사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민선 5기와 민선 6기인 현재까지 인사 관련 문제로 수차례 언론의 질타를 받으면서도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로 여기며 너무 쉽게 생각하신 것은 아닌지요?

이제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민선 5기와 6기 동안 충청북도가 시행한 인사가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한 인사가 이루어졌는지 검증해보는 인사특별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합니다.

인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충청북도에서 지금까지 시행한 인사가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이 배치되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이루어졌는지 검증해보고자 합니다. 또 인사특위 구성으로 도민 모두가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투명한 인사가 확보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충청북도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검증될 수 있는 인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기를 촉구 드립니다.



장 선 배 의원
(정책복지위원회)

“역사교육 강화, 친일인명사전 비치부터”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우리 역사를 바로 알리고 민족정기를 올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도와 도교육청에 역사교육 강화 노력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광복 70주년을 맞는 지금, 대외적으로는 일본의 독도 침탈과 군국주의 부활을 저지하고 대내적으로는 민족정기를 올바르게 세우는 것이 시대적인 과제가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도내 공공도서관 41곳 중 친일인명사전을 비치한 곳은 10곳이며, 중학교와 고등학교 도서관의 경우에도 전체 212곳 중에서 41개교에만 비치돼 있습니다.

충절의 고장답게 우리 지역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돕는 일, 추경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각급 도서관에 친일인명사전을 비치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현장에서 역사교육 확대 방안 모색을 요청드립니다.

충청북도에서도 도민과 젊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역사인식 강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급 도서관에 친일인명사전 비치로 시작으로 역사교육 강화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임 회 무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충북도정 정치적 운영보다 행정적으로 운영되어야

충청북도의 도정 운영이 정치적으로 운영되기보다는 행정적으로 운영되길 바라는 차원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시·군이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재해로 시·군의 재원만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사업, 낙후지역 개발사업 및 균형 발전 지원사업, 기타 특별한 재정수입의 감소 등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에 사용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 우리 괴산지역에 사업이 추진된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괴산군 지역의 특별조정교부금 선정 및 집행 사업을 본 의원이 알아보니 이씨(李氏) 종중 산소 진입로 약 400m를 도비 5천만 원을 들여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이 사업에 대해 면장, 군청 관련 부서, 도청 관련부서도 어떻게 선정됐는지 모르고 도지사님만 아는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정치적 예산집행이 아닌 행정적 예산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도정과 시·군정에 정치적 개입을 우려하면서 도민만을 위하는 도정이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5분

자유발언



김인수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충청권 역점 관광지 육성을 위한 제언

충북관광의 현주소와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타개하며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충북경제 4%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은 관광정책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립공원 속리산의 법주사 문화재 관람료의 무료화 추진입니다. 이를 위해 충북도와 보은군 그리고 법주사가 합의하여 매년 징수되는 문화재 관람료를 분담하고 이를 충북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속리산에 케이블카의 조속한 설치입니다.

셋째, 속리산 인근의 여관 및 숙박업 등에 관광개발진흥기금의 지원방안 강구입니다.

넷째, 관광패턴에 맞는 지역 관광자원의 개발입니다. 중부권 관광의 거점 도시인 보은관광의 활력화를 위해서 국립공원 속리산과 인접되어 있는 “비룡저수지”를 중심으로 ‘청벽 20리 둘레길 조성’과 함께 ‘수상레저 시설’의 확충으로 관광 보은의 옛 명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충북도의 짜임새 있는 관광투자를 실행해 주시기 바라며 국립공원 속리산이 충청권의 대표 관광지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의원
(정책복지위원회)

청주공항 이용객 증가! 지역 관광수입 확대로 연결안돼

청주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중국 관광객들의 도 내 관광 소비 촉진을 위해 충북도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충북 소재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확보가 필요합니다.

전담여행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체류형 여행 상품을 개발해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물꼬를 틀 수 있습니다.

둘째, 충청북도 관광산업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민·관 네트워크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시·군별 민·관의 이해관계자가 골고루 참여하는 광역단위 충북관광협의회(가칭)를 설치·운영하고, 기초자치단체별 협의회 구성 및 활성화도 지원해야 합니다.

셋째, 중·장기적 전략으로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미래형 관광상품 개발에 집중투자를 해야 합니다.

중국인들의 욕구와 우리 지역 특성을 면밀히 분석해 미래형 관광 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자청, 투자유치, 개발, 관광 분야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장기근무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정영수 의원
(교육위원회)

학교 주관 교복 공동구매제와 관련하여

교육부의 교복 가격 안정화 정책인 학교 주관 교복 공동구매제도가 올해 전국적으로 실시되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금년 3월 충북일보에 게재된 기사에 따르면 도내 학교 주관 교복 공동구매제 180개 학교 중 40개 학교가 교복을 구매하지 못해 교복을 입지 못하고 입학식을 치렀습니다.

2015년 4월 1일 현재까지도 15개 학교에서 교복을 착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 주관 공동구매한 교복이 품질 저하로 세탁 후 옷 크기가 줄어드는 등의 문제가 29곳의 학교에서 발생했고, 일부 학교에서는 구매한 교복을 반품한 후 각자 따로 구매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충북교육청에서는 담당자 및 학교장 협의회를 개최하여 교복 공동구매에 따른 문제에 대해 조속히 대처를 했다고 하나, 이에 따른 불편함과 품질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청에서는 학교 주관 교복 공동구매 제도에 대해서 철저한 홍보와 적기 납품, 하자 처리 등을 개선하여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신뢰받는 교육행정이 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충청북도의회는 3월 12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도의회와 (사)한국청년회의소 충북지부가 지역 현안 해결에 공동 대응하고 민주적 미래 인재 양성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정책복지위원회는 3월 5일 충청북도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를 방문해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1577-0199) 운영현황을 보고 받았다.



▲ 행정문화위원회는 3월 4일 남부권 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보은군 속리산관리사무소를 방문해 현황을 듣고 시설을 확인했다.



◀ 행정문화위원회는 3월 4일 남부권 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영동군 와인연구소를 방문해 현황을 듣고 시설을 확인했다.



▲ 4월 27일 일본 아마나시현 고후 북로타리클럽 일행들이 김양희 의원과 함께 도의회를 방문해 '일본 아마나시현 의회'가 충청북도의회와 교류를 희망하고 있다는 친서를 가져와 이언구 의장에게 전달했다.

지방자치 선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방안 대토론회

일시: 2015. 4. 17.(금) 14:00

장소: 대전광역시교육청 대강당

주최: 한국지방자치학회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 ▲ 이언구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들이 4월 17일 대전시 교육청 회의실에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와 지방자치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지방자치 선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방안 대토론회'에 참석해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 ▲ 교육위원회는 3월 3일 (가칭)진천유치원 설립 부지인 진천읍 삼덕리(구 신덕초 폐교)와 진천읍 장관리(진천축협 소유 부지)를 방문해 현장을 확인했다.



- ▲ 교육위원회는 3월 10일 ~ 12일까지 3일간 충청북도 제주교육원을 방문해 연찬회를 실시하고 제주 애월초등학교 더덕 분교장을 방문해 소규모 학교 활성화 방안 사례 연구 및 탐방을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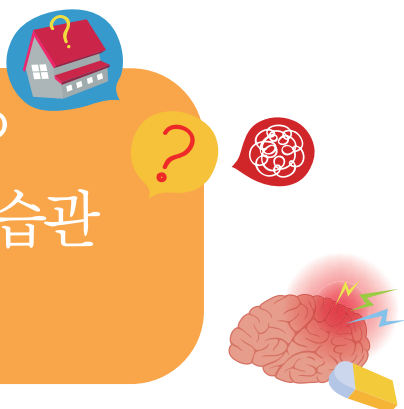
- ▲ 충청북도의회는 4월 22일 진천 성암초등학교 학생과 청주 금천초등학교 학생 70여 명을 초청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민주적 리더의 꿈과 희망을 키워주기 위한 청소년 의회교실을 실시했다.



- ▼ 이언구 의장은 3월 2일 단양군청 대회의실에서 단양군 공무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도전, 지역의 희망이다'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치매를 ? ? 예방하는 생활습관

치매는 올바른 생활습관으로
뇌를 관리하면 예방할 수 있다.



백희귀 내과전문의
(한국건강관리협회충북·세종지부)

몸에 좋은 것은 뇌에도 좋다!

가장 흔한 퇴행성 뇌질환 중 하나가 알츠하이머 치매다. 치매 예방은 그 발생 원인을 방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치료와 본질적으로 같다.

다만, 치료는 원인의 적극적인 제거 조치가 필요한 것이고 예방조치는 치매의 원인 요인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치매 치료를 위한 요법은 자체로 예방요법이 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치매 예방을 위한 생활 패턴만을 제시하기로 한다. 치매를 예방하려면 우리 몸에 좋은 것을 그대로 하면 된다. 건전한 정신과 건전한 육체를 가지기 위한 일상의 노력은 치매 예방에도 적용된다. 신체에 좋으면 뇌에도 좋고 신체에 부정적인 것은 뇌에도 부정적이다.

치매예방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 생활 패턴을 유지해야 한다.

균형 있는 뇌 영양 공급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뇌 영양이 제대로 공급되어야 한다. 엽산 섭취를 줄이고 인스턴트 음식은 삼간다.

신선한 제철 과일과 채소를 비롯한 된장, 청국장, 다시마, 등푸른 생선, 멸치, 녹차, 검은깨, 견과류 등을 자주 섭취해주는 것이 좋다. 등푸른 생선에는 DHA와 오메가3가 풍부하게 들어 있어 신경세포의 막을 강화해 학습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검은깨에는 기억력 향상과 뇌기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레시틴이 풍부해 치매예방에 효과가 있으며, 호두, 잣, 땅콩, 아몬드 등의 견과류 역시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뇌졸중 예방 및 치매의 진행을 막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꾸준한 운동으로 치매예방

나이를 먹을수록 뇌조직을 최대한 많이 유지하는 것이 좋다.

스트레스는 신경을 죽이고 신경재생을 느리게 하는 반면 운동, 특히 유산소운동은 노년의 뇌 조직 손상을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 또한 새로운 신경과 새로운 신경회로의 조성을 돕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0분 이상의 걷기나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을 일주일에 3번 정도 꾸준히 하면 뇌로 전해지는 산소와 영양공급이 늘어 뇌세포의 활동이 왕성해진다. 꼭 운동이 아니더라도 악기를 연주하거나 일기를 쓰거나 요리와 설거지를 하는 등 뇌세포를 활용할 수 있는 행위를 꾸준히 해주면 치매예방에 도움이 된다.

스트레스 관리 :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느낄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 스트레스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회적 유대관계 및 역량 강화, 충분한 휴식과 명상 등을 꼽을 수 있다.

▶ **사회적 유대관계 강화** : 친구, 가족, 애완동물과의 관계를 강화하면 신뢰감, 보호감, 휴식감을 증진시킨다.

만족스러운 유대관계가 정신적·육체적 건강에 좋다는 증거는 수없이 많다. 외로움은 스트레스를 높이며 수면에 안 좋을 뿐 아니라 우울증과도 관계가 있다. 단순한 인간관계의 증진보다는 적더라고 심도 있는 관계가 외로움을 감소시키는 데에 좋다.

▶ **역량 강화** : '역량 강화'란 자신이 느끼는 역량의 수준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심리적으로 느끼는 자신의 역량 수준과 스트레스 회복성은 상호 연계 되어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 **휴식** : 명상이나 요가, 타이치, 산책 등에 의한 휴식을 취하면 혈압을 떨어뜨리고 호흡과 신진대사 작용도 느리게 하고 근육긴장을 이완 시킨다.

▶ **명상** : 명상을 하면 감정 조절 능력이 높아진다. 감정 조절 능력을 높인다는 것은 환경 변화에 대한 생리적 반응을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료제공 : 한국건강관리협회 충북·세종지부 메디체크〉



임차건물 전기사용 명의를 본인 사업자명으로 변경하라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박유흥 씨는 2014년 1기 부가세 확정 신고 시 본인이 납부한 전기사용료(공급가액 150만원, 세액 15만원)에 대한 부가세 15만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신청 했으나, 얼마 후 세무서에서 공급받는 자가 임대인으로 되어있어 공제받을 수 없으니 공제받은 매입세액 15만원(가산세 별도)을 더 내야한다고 통보가 왔다.

위와 같이 한전에서 받은 전기료 납부통지서를 보면 명의자가 건물주로 되어 있거나 이전 임차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지 본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라도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먼저 한전에 전기사용자 명의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고 만약 전기사용자 명의를 변경할 수 없다면, 건물주(명의자)가 한전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한 전기요금과 부가가치세액을 건물주(명의자)에게 지급할 때에 건물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방법이 있다.



신고하고 못 낸 세금 고지서 받기 전 내면 가산세 줄일 수 있다

성실해 씨는 7월 25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부가가치세 1천만원은 납부하지 못하였다. 월말에 대금결제가 집중 되어 자금사정이 여의치 못했기 때문이다.

8월초가 되어 어느 정도 자금여유가 생기자, 성실해 씨는 못 낸 세금을 빨리 납부해 버리고 세금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어 고지서가 언제 나오는지 세무서에 알아보았다.

그랬더니 담당공무원은 고지서는 9월에 발부되지만, 고지서를 받기 전이라도 하루라도 빨리 세금을 내는 것이 유리하다며 다음과 같이 알려주었다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납부하지 못했을 때 가산하는 금액을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하는데, 그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text{납부불성실가산세} = \text{무납부세액(과소납부세액)} \times \text{경과일수} \times 0.03\%$$

여기서 ‘경과일수’란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일수를 말한다. 따라서 경과 일수가 적을수록 즉, 빨리 내면 낼수록 가산세는 그만큼 줄어든다.



〈자료제공 : 동청주세무서〉



충청북도, 미세먼지 대책 서둘러야



박 병 진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 때문에 서울·경기지역에서만 한해 30세 이상 성인 1만 5천여 명이 기대수명을 채우지 못한 채 조기에 사망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세먼지는 입자의 크기가 $10\mu\text{m}$ (0.001cm) 이하인 먼지를 말하며, 이 중에서 $2.5\mu\text{m}$

(0.0025cm) 이하의 먼지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른다.

미세먼지의 크기가 작을수록 폐의 깊은 곳까지 침투가 가능해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금년부터 초미세먼지에 대한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미세먼지 경보제를 운영하고 있다.

대기 중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발생원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미세먼지의 발생원은 토양과 연소시설이 대표적이며, 토양에서 기원하는 먼지로는 황사가 대표적인 예이다.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 흔히 존재하는 공사장이나 광산, 식물이 심겨있지 않은 대지에서도 바람에 의해 흙먼지가 대기 중으로 불려 올라가 미세먼지를 증가시키게 된다. 따라서 공사장에 대한 비산먼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겨울철 제설용으로 뿌려진 염화칼슘과 모래를 적기에 수거함으로써 미세먼지의 발생을 줄여야 한다. 또한 주기적으로 도로변에 쌓인 먼지를 제거하고, 물청소를 실시함으로써 도로변에서 재 비산되는 미세먼지의 발생을 줄여야 한다.

연소시설에서는 불완전 연소로 검댕의 형태로 직

접 배출되기도 하고 가스상으로 배출된 오염물질이 대기 중에서 입자로 바뀌어 미세먼지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연소시설은 산업용 보일러, 소각시설, 자동차 등이 포함되는데 연소시설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는 토양에서 기원하는 미세먼지보다 크기가 작고, 유해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따라서 연소시설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산업용 보일러 시설과 소각시설의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고, 청정연료의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노후된 자동차의 배기가스 관리를 강화하고, 친환경 운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하며, 대중교통 이용을 증가시켜야 한다.

도시의 환경을 개선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는 도시 숲을 확대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나대지 상태로 남아있는 공간에 숲을 조성하여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대기 중의 미세먼지가 식물의 잎에 흡착되어 재 비산 되는 것을 줄일 수 있으며, 도심의 기온 증가를 억제하여 오존 생성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시민들의 휴식공간과 운동공간을 제공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으므로 도시 숲 조성은 1석 4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친환경 대책이라 할 수 있다. 나무를 산에만 심는 것이 아니라 도심 곳곳에 적당한 수종을 식재하여 충북 전체를 녹색으로 가꾸어 미세먼지를 흡수할 수 있는 완충지대를 확대 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범국민적인 참여가 필요한 때이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져 보다 청정한 환경에서 국민의 건강이 증진되기를 바란다.

청년실업 해소! 정부·기업이 해결해야 할 숙제



이종욱 의원
(교육위원회)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1분기 '청년실업률'은 10.7%로 IMF 외환위기 시절인 1999년도 이래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의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청년 중 약 48만 명이 실업자라는 것인데, 이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실업률이고 실제 체감 청년 실업률은 22.9%~37.5%인 것으로 나타나 약 100만 명에서 150만 명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고 있거나 아예 취업을 포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충북의 청년실업률은 9.7%로 집계되었는데, 전국평균보다 지표가 낮다고 해서 좋아할 일은 아니다. 충북의 어느 지방신문에 실린 '꽃 피는 봄이 왔지만 고용시장은 아직도 겨울이다'라는 기사의 제목처럼 충북의 청년계층 취업난도 심화되고 있다.

이렇듯 취업이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다 보니 돌아온 취업 준비생이라는 '돌취생', 인문계의 90%는 논다는 '인구론' 등 취업의 어려움을 빚낸 신조어들이 등장하고 있다.

과거 대학만 졸업하면 취업이 되던 시절은 이제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의 이야기일 뿐 취업을 위해 어학연수는 필수고 TOEIC 900점에 각종 자격증과 사회봉사활동까지 다양한 스펙으로 무장한 청년들이 오늘도 밤늦도록 도서관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세계 70억 인구 가운데 일을 원하는 사람은 30억 명인데 괜찮은 일자리는 12억 개뿐이고, 기계가 인

간의 일자리를 뺏는 시대에서 다가오는 '제3차 세계대전'은 양질의 일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글로벌 전면전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견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청년실업률이 해가 다르게 치솟고 있는 상황 속에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정치권을 비롯한 대한민국 모든 기업들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인 것이다.

얼마 전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발표한 '임금피크제와 청년고용 연계' 정책은 통상임금 및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청년들의 신규채용을 늘리자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하고 국가 경제를 책임지는 중요한 일 일 것이다.

충북의 정치권과 기업이 나서서 충북의 청년 실업률을 해소하고 신규 고용 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거나 고용 창출 효과가 큰 기업에 세제혜택 등을 부여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취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능력과 흥미를 고려한 취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20년 후에도 후회하지 않을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부모 세대가 적극적으로 자녀들의 적성과 진로를 탐색하고 다양한 직접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일 일 것이다.

취업을 위해 치열한 시대에서 살고 있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고용 창출과 고용안정을 위해 지금이야말로 정치권과 기업들이 모두 발 벗고 나서야 할 때가 아닌지 묻고 싶다.



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 구현



“충북도의회는 항상 열려있습니다”

● 인터넷생중계 : <http://assemtv.cb21.net>

● 트위터 : <http://twitter.com/#!/chungbuk/assem>

● 페이스북 : <http://www.facebook.com/cbassembly>

| 청원안내 |

■ 청원서 제출방법

- 도의회에 청원을 하려면 도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 제출
- 청원서에는 청원인 주소·성명(성명, 서명(날인))
- 청원서에는 청원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음
-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청원서 제출사항

- 일정한 의견이나 희망표시
- 주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 구제 요구
- 공무원 비위의 시정, 징계, 처벌 요구
- 조례, 규칙 제·개정 등 자치단체 소관업무 등

■ 청원서 문의

- 의사담당관실 : 043) 220-5154

| 민원안내 |

■ 진정서 등 제출

- 진정민원은 진정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의견서 등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함
- 진정서는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진정내용을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

■ 민원제출방법

- 우편민원 : 360-76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의사담당관실
- 인터넷 : <http://assem.cb21.net>의 「도민발언대」에 글쓰기
- 전 화 : 043) 220-5154
- 팩 스 : 043) 220-5159

| 방청안내 |

■ 방청권 교부

- 방청권은 의회사무처에서 교부받은 방청권에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등을 기재하여 신청
- 방청시 방청인이 지켜야 할 사항 준수

■ 방청권 신청

- 의사담당관실 : 043) 220-5155



충청북도의회

<http://assem.cb21.net>